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表의 編纂을 提言함

趙 基 弘
(天安北中司書教師)

《目 次》

1. 序 言
2. 標目的 構成과 參照
3. 記 號
4. 細目表
5. 例示의 問題
6. 結 言

1. 序 言

圖書館은 生命體이다. 한 時도 쉬어서는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없는 動的인 存在이며 生命體이기 때문에 圖書館은 成長해야 하며 또 成長하고 있다.

現時點에 있어서는 아직 幼年期를免치 못한다 할지라도 10餘年前 慶南地區에서 부터 일어나기 始作한 우리나라의 學校圖書館 設立運動은 그 동안 斯界의 先輩 諸位의 눈물 어린 獻身의 努力의 씨는 열매를 맺어 이제 學校圖書館은 그 本然의 姿勢를 찾게 되었다고 본다. 學校圖書館의 機能은 認識되었고, 우리나라 教育의 現代化를 이룩하며 教育革新을 充足시킬 수 있는 絶對的인 要素로 登場하게 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教育에의 期待도 크며 學校圖書館에 負荷된 使命은 더욱 크다고 본다. 이렇게 重且大한 使命을 遂行하기 爲하여 學校圖書館은 內的으로 充實을 期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늘날 司書教師들의 業務量은 過多하고 司書教師들이 事務用으로 參考할만한 圖書는 不幸하게도 悲慘한 程度로 貧困하다. 그 中 가장 時急한 한 가지가 目錄作業에 不可缺한 主題名標目表가 아난가 생각되어 筆者는 本月報 3月號에 “主題名目錄 作成의 問題”——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라 題하여 現行 李載詒 教授編의 主題名標目表가 學校圖書館用으로서는 지나치게 複雜하여 좀더 簡便하고 使用하기에 便利한 主題名標目表가 나와야만 司書教師의 業務執行上의 隘路點을 解決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는 愚見을 실린바 있는데 이 글은 그의 繼續되는 性質을

가지는 것으로서 學校圖書館用 標目表가 早晚間 編纂되리라고 생각하며 그 結實이 잠시라도 빠른 時日內에 이루어지기를 期待하면서 標目表 編輯에 따르는 몇 가지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2. 標目的 構成과 參照

標目表를 構成하는 標目的 用語나 그 範圍에 對해서는 前述한 바 “主題名目錄 作成의 問題”에서도 言及한 바 있으나 順序上 여기에 다시 略述하고자 한다.

學校圖書館用 目錄의 主題名標目은 學校圖書館의 特殊性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卽 藏書 構成이나 利用者의 知識水準에 알맞게 目錄을 組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主題名目錄 作業에 使用할 수 있는 標目表를 學校圖書館에서는 따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標目表에 採擇되는 標目的 範圍나 語彙가 學生들에게 알맞아야 하며 參照도 學生들에게 적은 量의 圖書가 最大限으로 利用될 수 있게 案內되도록 하여야 할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이러한 點에서 標目表는 理論的이며 學術面에만 치우치지 말고 實質的인 面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例를 들어 圖書의 內容이 아무리 實證論(positivism)이나 懷疑主義(sketicism)이라 할지라도 “실증론” 또는 “회의주의”라는 標目 보다는 그 上位의 “철학” 아니면 “철학—독일”과 같이 地理區分을, 或은 境遇에 따라서는 “철학—서양—중세”와 같이 時代의 區分을 使用하는 標目を 採擇하면 “철학”이라는 넓은 테두리 안에 카아드가 全部 모이게 되므로 中等學校의 學生들에게는 “실증론”이나 “회의주의”보다 카아드 索出이 훨씬 容易하게 利用되리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問題는 哲學 分野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中等學校에서 教科科目으로 다루지 않는 宗教, 醫學, 政治, 經濟等 各分野가 모두 그러하다. 그 反面에 中等學校의 教科課程으로 다루고 있는 學問의 分野에 있어서는 學生들이 要求할만한 標目은 親切하게 標目으로 或은 參照로 採擇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假令 動物學에

있어서 “척추동물” “포유동물” “유계류” “食肉目” 개 및 個個의 개의 이름은 一連의 體系이므로 “포유동물” 까지를 標目으로 삼을 때 그 下位의 “유계류” 또는 “食肉目”에 關한 圖書는 “포유동물에서 보라”의 參照로 내 주면 어떠할까 한다.

該當 主題보다 上位 또는 下位의 主題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學生들에게 많이 通用되는 語彙를 主題로 묶어 보자는 것이다. 勿論 이 때에는 參照를 내주어야 할 줄로 안다. 이러한 問題는 物理學의 여러가지 法則, 例를 들면 “오옴의 法則”(Ohm's Law)이나 “파라데이의 法則”(Faraday's Law)에서도 느끼게 된다(日本 高等學校用 主題名標目表 p. 268 ファラデーの 法則→電流一作用, 參照) 重要な 法則인 탓으로 宿題가 많이 課해지는 까닭이랄까 가끔 “오옴의 法則” 또는 “파라데이의 法則”을 그대로 目錄에서 찾으려 드는 學生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學生들을 爲하여 “오옴의 법칙→전기” 또는 “파라데이의 법칙→전류”로 參照해 주면 카아드 索出을 도와 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目錄은 中等學校의 學生에게 알맞게 組織되어야 할 것이니 標目表도 學生들의 目錄이 될 수 있도록 編纂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標目으로 사용되는 用語도 勿論 學生들의 通用語로 採擇되어야겠다. “척추동물과 뱀목동물” “파충류와 뱀무리” “균류와 이끼무리” “저개발 국가와 후진국” “메트르법과 미터법” “포경과 고래잡이” 등 여러 가지가 이러한 問題에 屬한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無心히 넘겨 버릴 수는 없는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後者は 中等學校의 低學年에서 부터 高學年에 까지 全部 通하나 前者는 高學年이 되어야만 通用되기 때문이다.

即, 學生들에게 適當한 用語로 適當한 標目을, 그리고 活用性 있는 參照로 案內하여 주도록 標目表가 構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記 號

主題를 標目으로 採擇하는데 있어서 記號는 目錄組織의 簡素化와 標目을 理解하는데 크게 影響을 주는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李載喆氏의 標目表에 사용된 여러 가지 記號를 中心으로 하여 學校圖書館으로서 어떠한 記號를 어떻게 活用하면 보다 簡素하면서도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까를 살펴 보고자 한다. 同 標目表에 사용된 記號는 —; /; ·; (例; 체집·보전); (例; 한국. 국회. 민의원); (例; 그림, 사진첩); (例; 교육'법) 및 →; ⇨; x; xx;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있다.

첫째 —는 形式細目으로 사용되어 있다. 즉 교육—

통계; 교육—연구·지도; 한국어—사건等 —통계, —연구·지도, —사건은 교육의 形式細目으로 교육이라는 標目 아래 다시 形式別로 細分한 表示로 사용되어 있다.

둘째 /는 倒置表로 사용하였다. 즉 교육/중등; 교육/초등等으로 중등교육; 초등교육에 關한 目錄을 모두 교육이라는 한 곳에 모아 놓고 中·初等別로 分離시키며 個別的으로 集結시키기 爲한 手段으로 倒置시킨 記號인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例; 체집·보전), (쓰레기·쓰레기처리)(p. 240)는 “및”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關連 있는 두 主題로서 同時에 다루는 것이 便宜하다고 생각되는 複合 標目 사이에 쓰여져 있다.

넷째 .(例; 한국. 공군)은 國家機關細目으로 쓰여져 있다.

다섯째 ,(例, 대요, 요목)은 거이 비슷한 內容의 것을 한 곳에 묶어 標目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섯째 '는 된소리표로 “사이스” 대신 '포로 사용하였다. 즉 문'법이라 적고 문뻬이라 읽는다는 뜻으로 주어진 포인 것이다.

그런데 위의 모든 記號는 같은 主題名內의 細目群의 配列은 形式細目 特殊細目 倒置表 및 副標目を 모두 一括하여 Letter by Letter(子母順)의 配列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뜻으로는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目錄의 組織面으로 보아서는 簡素化 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닌가 한다. 즉 “—”, “/”, “.”를 같은 順序 Letter by Letter로 配列하였으나 學校圖書館에서는 이를 統合하여 한 가지 記號 “—”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한다.

그 다음은 “·”와 “,”의 問題이다. “체집·보전”은 체집 및 보전을 같은(同一) 標目으로 삼으라는 記號이며 “그림, 사진첩”도 그림이나 사진첩을 한 곳에 묶어서 同一 標目으로 삼으라는 記號이니 配列上으로 區分이 안 된다면 別途의 記號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前後의 語彙의 關聯은 多少 다르다 하겠으나 接續詞 and나 or와 通하는 記號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and나 or 어느 쪽이든 우리 標目에서는 “~도 ~도 한 곳에” 묶어서 標目으로 採擇하는 것이니 學校圖書館에서는 “·” 또는 “,”의 어느 한 가지의 記號로 統一시킬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接續詞의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더 考慮하고 싶은 것은 “독서와 도서”의 “와”와 “정신과 체육”의 “과”의 接續詞인데 앞의 “독서와 도서”의 독서, 도서가 모두 別途의 標目 독서, 도서로 採擇되어 있고 “독서와 도서”가 같이 標目으로 採擇되어 있는 것은 독서, 도서를 같이 取扱된 圖書의 標目を 말 함인줄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標目이 中等學校의 學校圖書館에서도 必要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後者의 境遇도 마찬가지이다.

또 “”의 된소리표는 目錄의 標目에서 된소리의 與否가 配列에 影響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까다로운 記號들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카아드 索出上의 混亂만 誘發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법” “국제’법”은 그대로 “문법” “국제법”이라 標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學生들에게는 된소리표를 使用한 經驗도 없거니와 現在 “문법” “국제법” 등으로 使用하고 있으니 말이다.

끝으로 參照표의 See Reference의 →와 x. See Also Reference의 ⇨와 xx. 도 單一化하여 “에서 보라” 參照와 “에서도 보라” 參照를 “~보라”와 “~도 보라”의 反對 方向 즉 x는 ←, xx는 ⇨으로 表示하면 어떻가 한다.

以上 여러가지 記號의 使用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즉 標目表 p. 103의

도서관—규칙은 그대로 도서관—규칙, 도서관/대학;

도서관/특수는 도서관—대학; 도서관—특수로 하고

p. 454의 한국. 국회도 “한국—국회”로 또 한국. 공군도 “한국—공군”으로 標記하고 p. 291의 “염료·염색”이나 P X V 제목의 “그림, 사진첩”의 “. . .”, “”은 모두 “염료·염색” “그림·사진첩”과 같이 한 가지 記號로 單一化시킨다.

또 p. 371의

정기간행물—색인.

xx 색인; 서지·서목은

정기간행물—색인

⇨색인; 서지·서목으로

p. 23의

고사숙어(故事熟語)

x 고사성어(故事成語)

xx 한국어는

고사숙어(故事熟語)

← 고사성어(故事成語)

⇨ 한국어로 記號를 簡素化시켰으면 標目表의 理解가 容易하여지고 司書의 業務進行도 閱覽하는 學生의 카아드 索出도 能率化하여지리라고 생각된다.

4. 細目表

細目은 어떤 一般主題名 또는 特殊主題名 아래에 좀더 具體的이면서 細分되는 것이 必要할 때에 使用할 수 있는 各主題에의 通用的 價値가 있는 項目을 採擇하여 目錄作成者의 立場에서는 目錄構成이 體系化되어

야 하며 圖書閱覽者의 立場에서는 카아드 索出에 便利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筆者는 細目表를 “一般細目” “文學細目” “地理細目” 및 “特殊細目”으로 區分하면 어떻가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가) 一般細目은 거의 모든 主題名에 使用할 수 있는 細目이라고 보겠다. 假令 “—역사”는 그 典型的인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이론” “—사건” 등은 必要에 따라 어떠한 主題名에도 使用할 수 있으며 또 使用할 頻度도 많다. 그러므로 本表中에서 이를 빼고 別途 細目表에 마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나) 文學細目은 十進分類法의 體系에 依據하여 생각한 것이다. 한국소설, 한국희곡 등과 같이 各國文學의 種類別로 主題를 採擇하면 같은 韓國文學의 희곡과 소설, 시의 카아드가 相當한 距離로 隔離되는데 反하여 各國文學의 큰 베두리 안에 全部 集結시켜 놓고 다시 “—소설” “—시” “—희곡”과 같이 部分的으로 모으려는 意圖에서 생각해 보았다(張一世著, 學校圖書館運營指針, 1964, 參照)

(다) 地理細目은 主題名의 地理區分과 區別하였다. 地理細目은 地名의 아래에 붙이는 細目인 것이다. “한국—기후”에 있어서의 “—기후”는 地理細目이며 “미술—한국”은 地理區分으로 區別하여 생각해 보았다. 즉 “정치—한국” “농업—멘다아크”와 같이 地理區分은 別途 本表中에 插入하여 두고 各地名에 따르는 “기후” “명승고적” 등과 같은 特徵을 細目으로 使用하면 어떻가 하는 試圖인 것이다.

(라) 特殊細目은 어떤 特定 主題名에만 適用되는 細目이다. 따라서 이것은 細目表를 따로이 가질 수는 없다고 본다. “생물—형태” “동물—분포”의 “—형태”나 “—분포”는 주로 生物이나 動植物에 限하여 適用되는 것이며 그렇다고 “생물형태” 또는 “동물분포”라는 標目を 잡으면 생물, 동물과 隔離되므로 이 隔離을 防止하기 爲하여 試圖한 것이다.

以上의 여러 가지 생각을 綜合하여 다음과 같은 細目表를 作成하여 보았다.

(가) 一般細目

—도감, —법규, —사진, 역사, —연감, —이론, —총서·전집, —통계.

(나) 文學細目

—기행, —소설, —수필, —시, —일기, —전집·선집, —풍자, —희곡.

(다) 地理細目

—교통, —기후, —기행, —명승·고적, —산업, —안내기, —지도, —통계, —풍속·습관.

이 以外의 特殊細目은 本表中에 插入하여 使用하도록 한다.

5. 例示의 問題

固有名, 團體名, 普通名의 主題를 가지는 圖書의 主題名은 이를 自由로 이 採擇할 수 있으나 이를 일일이 本表에 挿入할 수 없음을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各 主題名은 그 代表的인 것 만을 例示의 으로 本表에 挿入하고 目錄作成者가 必要에 따라 追加 挿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어느 標目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본다. 그 例를 現行主題名 標目表(李載喆編)에서 들어 보면 固有名詞에 屬하는 것에 ① 개인명 ② 家族名 ③ 地名 ④ 국적명(민족명) ⑤ 言語名과 文學名 ⑥ 戰鬪名 ⑦ 條約名; 團體名에 屬하는 것에 ① 學會, 團體名 ② 公共機關 ③ 政府機關名 ④ 建物, 公園, 船舶名 普通名詞에 屬하는 것에 ① 動物, 植物名 ② 病名 ③ 人體의 器管名 ④ 化學製品名 ⑤ 鑛物名을 例學하였고 國立中央圖書館의 張一世先生께서는 그의 著書 學校圖書館運營指針에서 具體的인 例示까지 보여주며 說明을 加하여 주었다. 學校圖書館用 主題名 標目表를 編纂한다고 假定해 보면 위의 例들 中에서 化學製品名 等 몇 가지가 削除되어도 無妨하지 않을까 한다. 編輯面에서 圖書館學의 初心者에게도 理解하기 쉽고 細目表와 같이 恒常 관심을 갖고 簡便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配慮되어 주었으면 한다.

6. 結 言

圖書의 內容이 깊지 못한 中等學校의 學生들에게 目錄으로 圖書를 檢索할 때 書名이나 著者의 目錄보다는 主題目錄에 依한 檢索이 가장 많이 活用되는 것이며 또한 便利한 것이다. 張一世先生은 그의 著書에서 主題名 目錄의 特徵을 다음 4個項目을 들었다.

(1) 어떤 主題에 對한 圖書資料를 그 主題를 表示하는 名辭로 찾을 수 있다.

(2) 같은 主題의 圖書資料는 같은 主題名 標目으로 表示되므로 한 곳에 모이게 된다.

(3) 主題名 目錄은 著者名 目錄 및 書名 目錄과 混合하여 가나다 順으로 配列한다.

(4) 關聯 있는 主題名을 連結할 수 있다.

即 目錄組織에서 活用性 있는 主題名 目錄은 圖書資料의 보다 많은 利用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며 利用者에 適當한 主題의 選擇은 利用度를 높일 수 있는 가장 重要한 方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用의 主題名 標目表가 大學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과는 別途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그의 編纂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에 따르는 全體的인 構成에 對한 大略을 들어 보았다. 勿論 위의 意見은 筆者 個人的인 생각을 적은 것이니 未洽한 點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全國의 一線 學校圖書館의 實務를 擔當한 先輩 諸位께서 意見을 綜合하시면서 斯界의 權威 있는 學者들의 指導를 받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學校圖書館의 體系 있는 發展을 爲해서 學校圖書館用 主題名 標目表가 編纂되어 주기를 提言하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

李載喆編. 주제명표목표. 연세대학교, 1961.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1964.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會. 件名標目表 一高校用— 東京, 明治書館 昭和 29年

〃 一中校用— 〃

〃 件名目錄の作成, 東京, 昭和29年.

山下榮件 著. 件名目錄の作り方. 東京, 蘭書房, 1953.

張一世 著. 學校圖書館運營指針. 서울, 新書閣, 1964.

金重漢 譯. 간이도서관자료목록법. 제4판, 서울, 4292.

1966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의 團體 및 個人會員께 부탁 드립니다. 第12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1966年度 事業을 國庫補助事業 9個, 自體事業 6個 合하여 15個種의 事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많은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여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고자 하는 共同 目標를 이룩 할 수 있도록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의 어려운 事情이 있을 줄 思料하오나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